

한국어 명사화 구문의 통사구조

김미자
(경희대학교)

Kim, Mija. 2005. The Syntactic Analysis of Korean Nominalization Constructions. *Linguistic Research* 22.1, 17-3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yntactic structures of a nominalization in Korea within a constraint based syntactic theory.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pproaches of Malouf(1998) which tried to explain the English nominalization in HPSG. On the contrary to English, this study suggested three types of syntactic structures in Korea such as *noun-possessive construction*, *finite-head-subject construction*, and *nonfinite-head-subject construction*, based on the diagnostic of various phemonema on the Korean nominalization. It depends on the subject cases realized within the gerund phrases. In the types of *noun-possessive construction* and *finite-head-subject construction*, the main verb subcategorizing a gerund phrase requires that the verb form of a gerund phrase should be a finite. And the verb subcategorizing the type of *nonfinite-head-subject construction* requires a *nonfinite* verb form of a gerund phrase. (Kyung Hee University)

Keywords Korean nominalization constructions, a constraint based syntactic theory, three types of syntactic structures in Korean, the types of noun-poss, finite-head-subj, nonfinite-head-subj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명사화 구문(Korean nominalization constructions)의 통사 구조(syntactic structure)를 진단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된 구문을 통해 제약기반 이론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문법 이래로 언어의 통사범주(syntactic categories)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동사(verb), 명사(noun), 형용사(adjective), 전치사(preposition) 등을 주요 범주로 인정하여 통사적인 현상들을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초기 생성문법에서는 이들 범주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명사와 동사 두 가지 범주만을 주범주로 설정하고, 이것에 ± 기호

를 이용해 설명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통사범주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근본적인 목적은 이들 주요 범주만을 가지고 언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법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로 자연언어 표현들을 주요 범주만 가지고 설명하는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 가운데 많이 알려진 현상이 혼합 범주적 성격(mixed categorial properties)을 나타내는 자연언어 표현들이다. 이는 언어표현이 하나 이상의 통사적 범주 성격을 동시에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명사화 구문(nominalization constructions)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명사화 구문은 자신이 이루고 있는 구문의 외형적인 통사적 속성은 명사 범주 속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는 동사 범주 속성을 나타낸다. 이런 혼합 범주적 속성은 핵어적 통사구조인 X-Bar 구조를 준수하지 못하여 자신이 이루는 구문에 대한 통사적 속성이 전체 문장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통사 범주적 특성을 제약기반이론 내에서 설명하려는 최근의 시도가 Robert Malouf(1998)에서 있었다. 영어에서 나타나는 명사화 구문의 혼합 범주적 속성을 설명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명사화 구문의 특징과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어에서의 명사화 구문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을 진단해보고, 제약기반이론 내에서 이 구문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겠다.

2. 영어의 명사화 구문

2.1 영어 명사화 구문의 특징

영어에서 명사화 구문은 동사에 '-ing'가 결합한 형태의 동명사가 문장 내에서 혼합범주적인 속성(mixed categorial property)을 나타낸다. 동명사가 이루는 구의 내부 모습은 동사가 가지는 일반적인 속성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동명사구의 전체의 모습은 명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 (1) a. **Brown's deftly painting his daughter** is a delight to watch.
 b. Brown is well known for **painting his daughter**.
 c. I dislike **Brown painting his daughter**.

위의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Robert Malouf, 1998), 동명사구의 외부적인 분포(external distribution)는 문장 내에서 명사구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치인 논항 위치(argument position)에 나타난다. a의 경우는 주어, b는 전치사의 목적어, c는 동사의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고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속성은 일반적인 내포문장의 속성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징이긴 하지만, 일반 명사들이 위치할 수 있는 소유격으로 나타나는 한정사의 자리에는 나타나지 못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

반면 동명사구의 내부적인 구조(internal structure)는 동사구의 특징을 보여, 일반 정형동사(finite verb)와 동일한 하위범주화 속성을 가진다. 위 (1)에서 동명사 *painting*과 이에 대응하는 정형형태의 동사 *paint*는 동일하게 명사구 하나를 하위범주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a)에서 보는 것처럼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또한 동명사구의 주어는 수의적인(optional) 속성이 있긴 하지만, 있을 경우에는 소유격(genitive)이나 목적격(accusative) 명사구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격 주어, 소유격 주어, 무주어 동명사구들이 나타내는 특징은 영어의 다른 구문과는 차별화되는 속성을 나타내는 동명사구만이 가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차별화 되는 동명사구의 특징을 영어에서 하나의 구문으로 일반화하고, 이 구문에 3가지 유형의 구조적 특징을 포착해서 제약기반적 이론 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Robert Malouf(1998)가 제시하였다.

다음 부분에서 Robert Malouf(1998)의 제약 기반 이론의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그의 제안이 한국어의 명사화 구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의 명사화 구문이 그의 구조적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어떤 방식으로 지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2.2 영어 명사화 구문의 혼합범주적 구조¹

제약기반이론 내에서 Malouf(1998)는 영어 동명사 구문이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특징들을 제약기반이론의 범주적 속성, 하위범주화 속성, 구문 자체의 속성의 정보를 각각 구별화하여 제시하였다. 즉, 동명사 구문의 외연

¹ 본 연구에서는 명사화 구문의 구조적인 특징을 다루므로, 그 이외의 사항들은 논외로 하였다.

적인 분포 속성인 명사의 품사적 속성은 한 구의 외부적 분포를 결정하는 범주적 정보(categorial information)에서 말아할 수 있고, 동명사 구문의 내부적인 속성인 동사의 하위범주화 속성은 한 핵어가 이루는 구문에 어떤 다른 종류의 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선택적 정보(selectional information)에서, 그리고 동명사 구문이 다른 구문과는 다른 구문적인 특징은 통사적인 단위의 결합을 결정하는 구문적인 정보(constructional information)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먼저 영어 동명사의 어휘적인 속성을 다음의 어휘규칙을 통해 생성되므로, 동명사만이 가지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2) \left[\begin{array}{l} \text{HEAD} \left[\begin{array}{l} \text{verb} \\ \text{VFORM} \text{ prp} \end{array} \right] \\ \text{VAL} \left[\begin{array}{l} \text{SUBJ} \langle [1]\text{NP} \rangle \\ \text{COMPS} [2] \\ \text{SPR} \langle \quad \rangle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HEAD} \quad \text{gerund} \\ \text{VAL} \left[\begin{array}{l} \text{SUBJ} \langle [1] \rangle \\ \text{COMPS} [2] \\ \text{SPR} \langle [1] \rangle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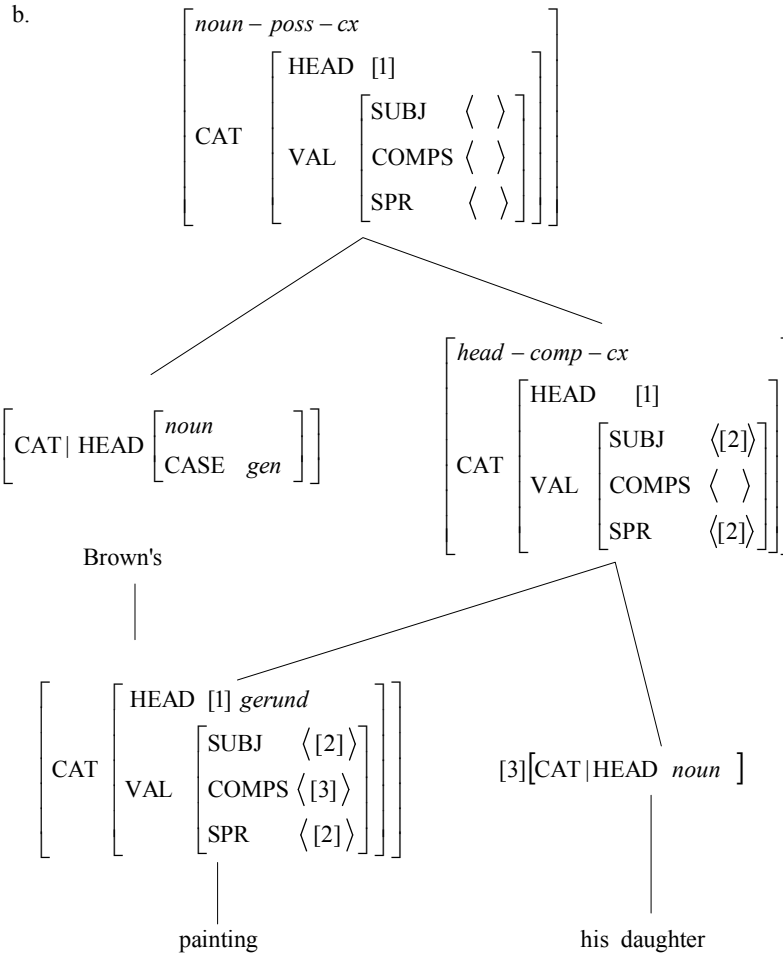
이 규칙이 말하는 것은 현재 분사형태를 한 동사에서 품사가 동명사²가 도출되는데, 이때 동명사는 도출된 동사의 하위범주화 속성을 그대로 유지해, 주어로 명사 하나와 보어 하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단, 도출된 동사와 다른 하위범주화 속성은 주어 하나와 지정어(specifier)어 하나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동명사만이 가지는 하위범주화 속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유형의 동명사 구문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즉, 주어가 대격(accusative case)인 명사구가 올 때에는 비정형 핵어-주어 구문(nonfin-head-subj-cx)이 도출되고, 주어가 소유격(genitive case)인 명사구가 오는 경우에는 명사-소유-구문(noun-poss-cx)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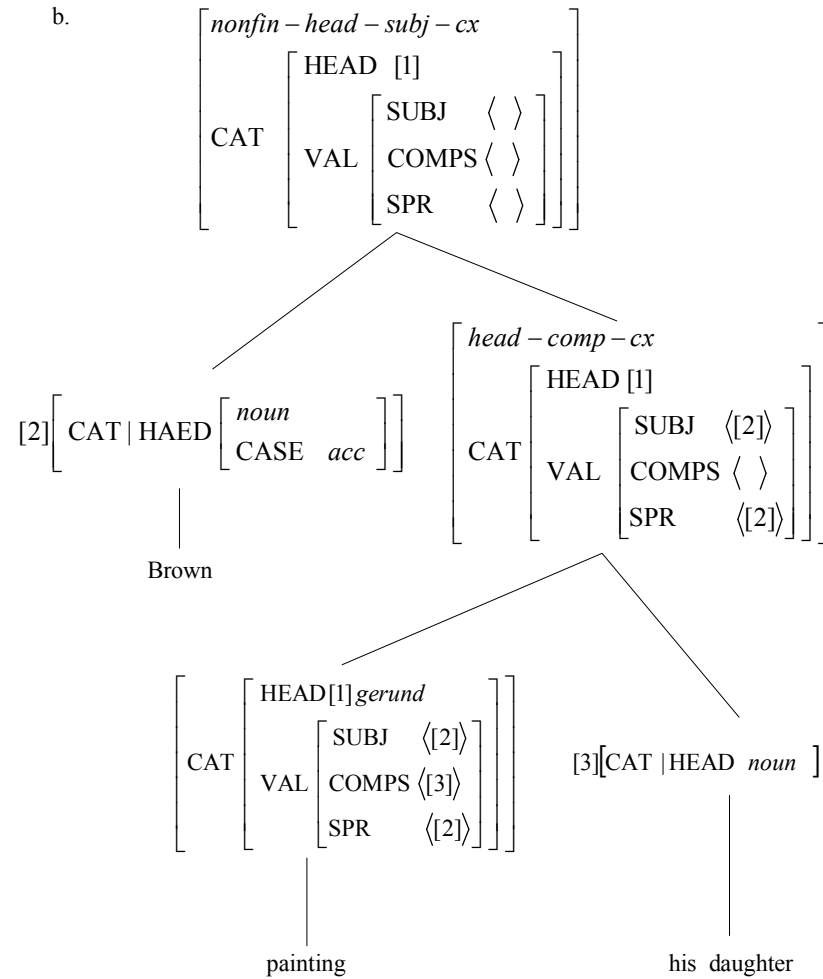
따라서 위 (1)의 예문에서 나타난 동명사 구문의 구조를 도식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² 현재분사 형태의 동사와 이것에서 도출된 동명사와의 차이점은 동명사는 현재분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법동사(modal)와는 함께 나타날 수 없는 속성을 포착할 수 있다고 Malouf(1988)은 지적하고 있다.

(3) a. [Brown's painting his daughter] is a delight to watch.



(4) a. I dislike [Brown painting his daughter].



3. 한국어의 명사화 구문

3.1 한국어 명사화 구문의 특징

한국어 명사화 구문은 일반 동사에 명사화 접사 ‘-음’과 ‘-기’가 첨가되어 이루어진다. (5)a, b의 예문처럼 명사화 접사 ‘-기’가 사용되어 명사화 구문

을 형성하고, (5)c, d의 경우는 접사 ‘-음’이 명사화 구문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a.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가 쉽다.
 b. 나는 어머니가 그 책을 읽으셨기를 바란다.
 c. 영희는 그 일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d. 영희는 철수의 갑작스런 떠남이 섭섭했다.

영어와는 달리 두 가지 종류의 명사화 접사가 있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접사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명사화 구문이나에 따라 통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행동을 나타낸다. 이들의 행동을 살펴보겠다.

3.1.1 명사화 구문의 주어와 격

영어의 명사화 구문에서는 동명사가 요구하는 주어의 격에 따라 전체 명사화 구문에 차이(의미적인 속성)를 보인다고 Malouf(1998)는 지적하고 있다. 즉, 소유격(possessive)을 주어로 취하는 명사화 구문은 명사구(NP)와 같은 의미적인 성격을 나타내며, 목적격(accusative)을 주어로 필요로 하는 명사화 구문은 하나의 문장(sentence)과 같은 의미적인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명사화 구문에서는 어떤 종류의 명사화 접사가 생성하는 구문이나에 따라 명사화 구문이 필요로 하는 주어의 격(case)이 달리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명사화 구문에 나타나는 주어의 격은 주격(nominative case), 소유격(possessive), 그리고 여격(genitive case)이다.

‘-음’ 명사화 구문³은 다음 (6)a, b에서처럼, 그 주어로 주격과 소유격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 (6) a. 영희는 철수가 갑작스럽게 떠남이 섭섭하다.
 b. 영희는 철수의 갑작스런 떠남이 섭섭하다.
 c. *영희는 철수에게 갑작스런 떠남이 섭섭하다.

³ ‘-음’ 명사화 구문에서 주어가 소유격으로 실현된 것 가운데 동사의 어간에 명사화 접사 ‘-음’이 첨가되어 어휘적인 명사(과생명사)로 오랫동안 굳어져 사용되는 단어들의 경우가 더욱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반면 ‘-기’ 명사화 구문은 다음 (7)a, b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로 주격과 여격의 명사구를 취할 수 있고 소유격이 올 경우에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7) a. 영희는 철수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 b. 영희는 철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 c. *영희는 철수의 돌아오기를 바란다.

위 예문 (6)과 (7)에서 볼 수 있듯이 ‘-음’ 명사화 구문은 여격 명사구를 주어로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기’ 명사화 구문은 소유격 명사구를 주어로 허용하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명사화 구문의 수식어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및 명사상당어구를 수식하고, 부사는 동사 및 동사상당어구를 수식한다. 명사화 구문에서는 형용사와 부사가 어떤 수식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본다.

- (8) a. 철수의 이른(이르게) 떠남이 섭섭하다.
- b. 철수가 이르게(*이른) 떠남이 섭섭하다.
- c. 연약한 여자가 그 항아리를 가볍게(*가벼운) 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 d. 그는 나에게 빨리(*빠른) 출세하기를 바란다.

이 예문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명사화 접사 ‘-음’의 경우에는 소유격을 주어로 허용하는 구문에서는 형용사와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지만 주격 주어를 취하는 b의 예에서는 형용사 수식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명사화 접사 ‘-기’의 경우에는 형용사를 수식어로 취하지 않고, 부사만을 수식어로 허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1.3 명사화 구문의 시제

한국어의 명사화 구문에서 명사화 접사 ‘-음’과 ‘-기’가 시제에 있어서 다

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음’ 명사화 구문의 경우에는 [+tense] 접사를 가진 동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의 경우에는 [-tense] 속성을 가진 동사구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 (9) a. 그 일에 문제가 있/있었-음을 지적했다.
 b. 그들은 서로 만나/*만났-기를 꺼렸다.

명사화 접사 ‘-음’에서는 ‘있음/있었음-을’처럼 시제에 대한 제약 없이 현재형과 과거형이 모두 허용되지만, ‘-기’의 경우에는 ‘만나-기-를’은 좋지만 ‘만났-기-를’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을 보면, 이런 사실에 예외 현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10) a. 나는 영희가 그 일을 하/했-기를 바랐다.
 b. 서울에는 비가 오-/왔-기를 기대했다.

(10)에서는 a와 b 모두 현재와 과거시제의 명사화 구문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예문들이 (9)의 예문과 다른 차이점을 확인해 보면 (10)처럼 주절동사가 ‘바라다, 기대하다’의 동사가 올 경우, 이 주절동사는 명사화 접사 ‘-기’가 그 동사의 어근에 시제접사가 첨가된 어간과 함께 사용된 (10)의 ‘하-기-를’의 경우에도 좋고, ‘했-기-를’의 경우에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사화 접사 ‘-기’의 경우에는 이런 양면적인 속성을 보인다.

이런 차이는 어떤 종류의 동사가 주절의 술어로 나타나느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 (11) a. 나는 그녀가 일을 하/했-기를 바랐다.
 b. 서울에는 비가 오-/왔-기를 기대했다.

- (12) a. 나는 화해하기를 주장했다.
 ??나는 화해했기를 주장했다.
 b. 나는 우리가 이미 화해했음을 주장했다.
 *나는 화해함을 주장했다.

위 예문(11)에서 보는 것처럼, 주절의 동사 자체가 ‘요구하다, 희망하다, 원하다, 바라다, 권하다, 기대하다’ 등의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 항목들은 그 논항으로 시제 변화가 자유로운 ‘-기’ 명사화 구문을 허용한다. 이런 경우 이 유형의 동사들은 그 논항에 대한 주어의 기대나 바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12)는 시제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유형들이다. a 경우 시제변화를 하는 명사화 구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 문장의 화용론적인 속성이 아니라 주절동사 ‘주장했다’가 갖고 있는 어휘적인 속성 때문이다.

3.2 한국어 명사화 구문의 구조적 특징

3.2.1 명사화 구문과 시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자유로운 시제변화를 가지는 동사 유형들의 경우 상당히 특이한 속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비교적 자유로운 시제변화를 하는 유형의 동사들이 그 보어로 명사화 구문을 취할 경우, 명사화 구문 내의 주어가 주격으로 실현되느냐 또는 여격으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다른 상황이 연출되었다. 다음 예문에서처럼 명사화 구문의 주어가 여격으로 실현되었을 경우에는 시제 변화가 자유롭지 못하다.

- (13)⁴ a. 철수는 영희에게 떠나기/ *떠났기-를 요구한다.
 b. 철수는 영희에게 동행하기/ *동행했기-를 원했다.
 c. 철수는 영희에게 공부하기/ *공부했기-를 바란다.
- (14) a. 철수는 영희가 떠나기/ 떠났기-를 요구했다.
 b. 철수는 영희가 동행하기/ 동행했기-를 원했다.
 c. 철수는 영희가 공부하기/ 공부했기-를 바랐다.

(13)의 예문처럼 명사화 구문의 주어가 여격의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돌연히 시제변화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 (13) a처럼 ‘나에게 떠

⁴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위의 (18)예문을 다시 적어본다. 이 논문에서 ‘나에게’ 위치에 ‘나를’이 오면 이는 Focus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 논문의 범위밖에 둔다.

나기를’은 좋은 반면에, 이와 대응되는 ‘나에게 떠났기를’은 좋지 않다. 이런 현상은 명사화 구문의 주어가 주격으로 나타났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3)과 (14)의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어의 명사화 구문에서 주어가 ‘내가’처럼 주격일 때와 ‘나에게’처럼 여격일 때 모두 전하는 의미는 같다는 것이다. 단지 이들이 가지는 차이점은 (13)과 (14)의 예문들이 다른 통사적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이다. 즉, 명사화 구문의 주어가 주격이든 여격이든 의미는 같은 반면, 주격 주어가 실현되었을 때는 명사화 구문 전체가 하나의 보어(single complement 즉, 하나의 SOA argument) 요소가 되고, 여격 주어가 되었을 때는 명사화 구문내의 주어와 술어가 각기 서로 다른 보어(즉, 다른 구성성분) 요소가 되는 다른 통사적 구조를 가지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어 명사화 구문은 명사화 접사 ‘-음’과 ‘-기’에 따라서 그 통사적 구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명사화 접사와는 상관없이 명사화 구문의 주어가 어떤 격으로 실현되느냐(실현될 수 있느냐⁵)에 따라 다른 통사적 구조를 가지는 유형의 구문이 되는 것이다. 위 (13)과 (14)의 예문들을 기반으로 다음 부분에서 이들 명사화 구문의 구성성분(constituent)을 확인해 보겠다.

3.2.2 명사화 구문의 구성성분

명사화 구문내의 주어가 주격으로 실현되는 경우 이 명사화 구문이 하나의 구성성분(constituent)이 되어 주절 동사의 SOA 논항(argument)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여격의 경우에는 여격 주어와 명사화 술어가 하나의 구성성분이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주절 동사가 이들을 각각 두 개의 보어 요소로 하위범주화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을 분리(Cleft) 구문과 주제화 구문(Topicalization)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

(15)⁶ a.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떠나기이다.

⁵ 명사화 구문의 주어가 어떤 격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는 이 명사화 구문을 허용하는 주절의 동사에 달려있다.

⁶ 예문 c의 경우는 직관 테스트를 실시해 본 결과, 어색한 문장이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

- b. 그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떠나기이다.
- c.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떠나기이다.
- d. *그녀가 내가 요구하는 것은 떠나기이다.

위 (15)의 분리(Cleft) 구문⁷에서 a의 경우는 명사화 구문 ‘나에게 떠나기’는 주절동사 ‘요구하다’가 두 개의 논항을 보어로 하위범주화하는 통사적 구조를 가지므로 ‘나에게 떠나기’가 하나의 구성성분이 되었으므로 본 논문의 전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좋지 않은 문장이다. 반면 b의 경우에는 ‘나에게’와 ‘떠나기’가 분리되는 구성성분을 이루므로 좋은 문장이다.

이와 달리 c에서 명사화 구문 ‘내가 떠나기’는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어 주절 동사 ‘요구하다’의 하나의 논항으로 실현되었으므로 문법적인 문장이다. d의 경우는 하나의 구성성분인 ‘내가 떠나기’가 분리되었으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이 분리 문장(Cleft sentence)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요약하면, ‘요구하다’라는 주절 동사가 명사화 구문을 하위범주화 할 때, 의미는 같지만 두 가지의 다른 통사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이것은 하위범주화되는 명사화 구문의 주어와 주격 또는 여격으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주격일 경우 이 명사화 구문은 하나의 구성성분이 되어 SOA 논항이 되는 것이고, 여격일 경우에는 주어와 명사화 구의 술어가 다른 구성성분을 이뤄 각각 주절 동사의 논항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주제화 구문(Topicalization)에서 살펴보자.

- (16) a. *나에게 떠나기는 그녀가 요구하였다.
 b. 떠나기는 그녀가 나에게 요구하였다.
 c. ?내가 떠나기는 그녀가 요구하였다.
 d. *떠나기는 그녀가 내가 요구하였다.
 e. 나에게서는 그녀가 떠나기를 요구하였다.

이 주제화 구문에서 a의 경우 ‘나에게 떠나기’는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

람도 있음을 밝힌다. 물론 본인은 비문법적인 문장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⁷ 사실 이 Cleft 구문 ‘그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떠나기이다.’가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러우려면 ‘그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가 된다. 이로 인해 직관에 따라서는 약간 부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가능성도 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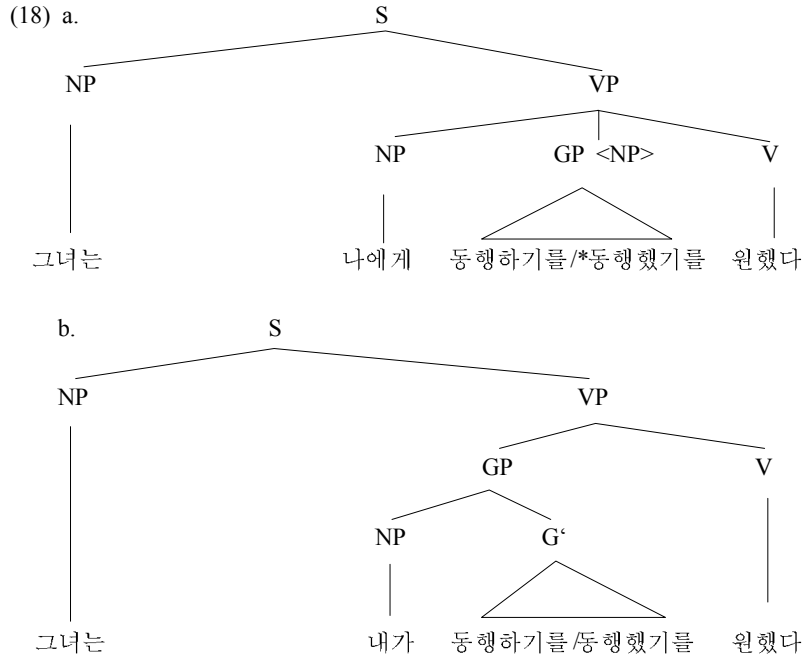
루지 않으므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반면 b의 경우는 다른 구성성분이므로 본 논문의 전제에 적합하므로 좋은 문장이다. c는 ‘내가 떠나기’는 하나의 구성성분을 형성하므로 비문법적이진 않지만 썩 좋은 문장은 아니다. d의 경우는 ‘내가 떠나기’가 분리된 성분을 이루었으므로 비문법적이고, 반면 e의 경우는 ‘나에게는 떠나기’가 다른 구성성분을 이루었으므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리(Cleft) 구문과 주제화 구문에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내가 떠나기’는 하나의 구성성분이 되어 SOA 논항으로 실현되고, ‘나에게 떠나기’는 하나의 성분이 되지 못하므로 별개의 논항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3 명사화 구문의 유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명사화 구문은 영어와는 달리 주어의 격이 주격과 소유격으로 실현될 경우와 여격으로 실현되었을 경우 다른 통사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명사화 구문의 시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명사화 구문의 통사적인 구조를 다음 (17)과 (18)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 (17) a. 그녀는 나에게 동행 *했기/하기를 원했다.
b. 그녀는 내가 동행했기/하기를 원했다.



(17)의 문장들은 각각 (18) a, b의 통사 구조를 가진다. (18) a의 경우에는 주절동사 ‘원했다’가 3개의 보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두 개의 명사구(NP), 즉 주어로 ‘그녀는’과 목적어 명사구 ‘나에게’와 하나의 명사화 구문(GP)을 하위범주화 하고 있다. 이때 주절동사가 요구하는 명사화 구문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다. 즉, 명사화 구문의 시체가 반드시 현재형이어야 하고, 채워지지 않은 주어(unsaturated subject)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는 명사화 구문의 시체변화도 주절동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다.

또한 (18)b는 a와는 달리, 주절동사 ‘원했다’가 2개의 보어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주어 명사구 ‘그녀는’과 명사화 구문 ‘내가 동행하기를’을 하위범주화 하는 통사적 구조를 가진다. 이때 주절동사가 요구하는 명사화 구문에 대해서는 명사화 구문의 주어가 채워져(saturated)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채워지지 않은(unsaturated) 명사화 구문인 ‘*그녀는 동행하/했-기를 원했다’가 될 경우는 비문이 된다. 이 구조의 경우 주절동사가 채워져 있는 명사화 구문을 요구하므로, 이 명사화 구문의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시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 내부에서 시제의 실현양상은 주절동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이 명사화 구문이 가지는 두 가지 통사적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절동사가 요구하는 명사화 구문이 채워진 것을 요구하느냐 또는 채워지지 않은 것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구조를 형성한다. 주절동사가 채워진 명사화 구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내부의 시제 변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즉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가 비어 있는 명사화 구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내부의 시제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2.4 제약기반이론에서 한국어 명사화 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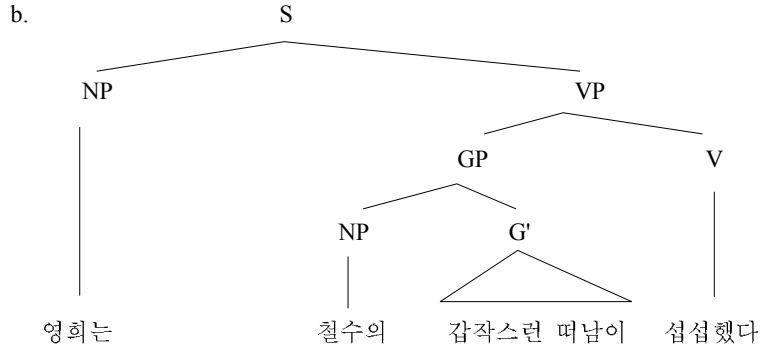
한국어의 명사화 구문은 이상의 2.3에서 살펴본 주어가 여격인 것과 주격인 것의 두 가지 유형(type)과, 주어가 소유격으로 나타나는 유형(type)으로 이루어지는 특정한 구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주어가 소유격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의 명사화 구문(여격 및 주격)에서는 명사화 구문이 필요로 하는 주어가 모두 실현된 유형과 실현되지 않은 유형이 있다. 이 가운데 주어가 실현되지 않아 하나의 명사구(NP)를 주어로 요구하는 명사구 유형은 그 주어로 여격(dative case)을 필요로 한다. 반면 주어가 실현되어 더 이상의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명사구 유형의 경우에, 내부에 실현된 주어는 소유격(possessive case)이나 주격(nominative case)이 나타난다.

이 3가지 유형의 한국어 명사화 구문의 구조를 나타내면, 명사화 구문내에 주어가 채워지지 않은(unsaturated) 구문을 형성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주어의 격을 여격(dative)을 요구하는 유형인 (18)a의 *nonfinite-head-subject construction* 구문유형과, 명사화 구문내에서 주어가 모두 채워진 포화상태(saturated)의 구문을 구성하는 유형으로 주어를 주격으로 요구하는 구조인 위 (18)b의 *finite-head-subject-construction* 구조유형과 다음 (19)a의 *noun-possessive-construction*의 구조유형이 된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3가지 유형가운데 명사화 구문내에 주어가 채워지지 않은 유형의 경우에는 시제에 대한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반드시 *nonfinite type*의 구문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19) a. 영화는 철수의 갑작스런 떠남이 섭섭했다.



4. 결론

본 연구는 혼합범주적 속성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명사화 구문에 대해 제약기반이론 내에서 그 통사적 구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약기반이론 내에서 영어의 명사화 구문을 제시한 Malouf(1998)의 명사화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영어의 명사화 구문과는 달리 한국어의 명사화 구문은 명사화 구문내에서 주어의 어떤 격으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명사화 구문을 이루는 동사의 시제에 대한 제약이 부여되거나 부여되지 않는 유형의 다른 통사적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이로 인하여 영어의 2가지 유형의 명사화 구문과는 달리 한국어는 3가지 유형의 명사화 구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영어의 경우에는 명사화 구문의 주어의 격에 따라 *noun-possessive construction*과 *nonfinite-head-subject construction*을 형성한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noun-possessive construction*, *finite-head-subject construction*, 그리고 *nonfinite-head-subject construction*의 3가지 유형의 통사 구문을 형성하였다.

*noun-possessive construction*과 *finite-head-subject construction*의 경우에는 명사화 구문을 필요로 하는 주절 동사가 명사화 구문 내부의 동사 시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nonfinite-head-subject construction*의 경우에는 주절 동사가 명사화 구문 내부의 동사가 *nonfinite* 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제약을 부여하게 된다.

참고문헌

- 권재일, 『한국어 문법의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4
- 심재기, 「명사화의 의미기능」, 『언어』 제5권 제1회, 1980
- 후지사와 후미또, 『현대 한국어의 형태론 연구』, 계명대출판부, 1996
- Chomsky, Noam,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A. Jacobs and P. S.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Waltham, Mass.: Ginn-Blaisdell.
- Kaiser, Lizanne, Korean type IV nominalizations: Syntactic versus morphological phrasal affixation, Selected papers from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July 6-9,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998
- Kim, Jong-Bok, A Constraint-Based Approach to Korean Verb Inflections. In C.-R. Huang et al (eds.) *Proceedings of Pacific Asia Conference on Formal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PACFoCoL I)*, 1994, pp. 166--179.
- Malouf, Robert, *Mixed Categories in the Hierarchical Lexico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1998
- Pollard, Carl & Ivan A. Sag,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Pollard, Carl & Ivan A. Sag,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 1: Fundamentals*, CSLI Lectures Series, Stanford: CSLI Publication, 1987
- Sag, Ivan A. & Thomas Wasow,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1998
- Sells, Peter, Optimality and Economy of Expression in Japanese and Korean. In Noriko Akatsuka et al. (eds.) *Japanese/Korean Linguistics 7*. CSLI, Stanford Linguistics Association, 1998, pp. 499--514.
- Sells, Peter, Positional Constraints and Faithfulness in Morphology. In S. Kuno et al.(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7*. Harvard University, 1997, pp.488--503.
- Yoon, James H. S. 'Nominal gerund phrases in English as phrasal zero derivations', *Linguistics 34*, 1996, pp. 329-356.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130-701
 전화: 02-961-0211
 E-mail: kim_mija@hotmail.com

접수일자: 2005. 05. 03

게재일자: 2005. 06. 19